



주간

# 대학교육

597

2010년 6월 21일

The KCUE Weekly

발행인 : 이기수 / 편집인 : 성태제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상암센터 11층  
 대학홍보 안내 및 문의 전화 : 02 · 6393 · 5285 팩스 : 02 · 6393 · 5280 이메일 : weeklynews@kcue.or.kr 홈페이지 : www.kcue.or.kr

## 대교협 주간 주요 활동

### ● 2010 대학자체평가 모범사례 확산 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자체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평가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10.6.16(수)~6.18(금) 제주칼호텔에서 "2010 대학자체평가 모범사례 확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대학평가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교과부 관계자 및 4년제 대학의 평가담당자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미국 대학의 자체평가 추진 계획 및 평가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린다 버클리 부총장의 강연을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가인증 사례 연구 :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 WASC 평가, 새로운 대학평가인증 시스템 정착방향, 고등교육 질 보증과 대학평가인증의 방향, 2009 대학자체평가 결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교육(학과)단위 대학자체평가 사례, 부서 성과관리 대학자체평가 사례, 성과관리 기본을 이용한 대학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개별 대학들은 자기점검 및 외부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자율적인 질 관리 강화와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별 대학 스스로 점검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유용한 정보와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졌다.

## 회원대학 소식

### ●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희망 나눔 콘서트'에 보훈가족과 국군장병을 초청해 음악회를 펼친다.

16일(수) 오후 7시 30분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국군관계자 등 1천 5백 명을 초청,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희미해지기 쉬운 호국보훈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광역시, 대구 MBC, 대구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시립합창단과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공군군수사령부군악대, 육군 제2군사령부 군악대 등 출연진만 모두 220여 명에 이른다. 우정의 노래, 거위의 꿈,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홈бой', '6·25 교성곡' 등 16곡을 공연한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성적인 선율을 선사하고 독립국악단과 교향악단은 호국보훈의 뜻을 기려 대한제국 애국가와 현재의 애국가를 편곡해 연주해 준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창 안숙선이 특별 출연해 '심청가'의 한 대목을 들려주는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공연은 보훈가족과 국군장병을 우선 초청하게 되며 일반 시민도 전화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계명대의 이번 공연은 '희망 나눔 콘서트' 시리즈 2번째로 지난 4월에도 지역 다문화 가정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지역이웃을 초청해 가곡의 밤 행사를 가진 바 있다.

### ● 금오공과대학교

2010년 6월 16일(수),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우형식)는 재료연구소(KIMS, 소장 조경목)와 첨단전자의료기기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연구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997년 10월 25일에 『학·연 협동연구』를 위한 상호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금오공대가 추진하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더욱 긴밀한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첨단전자의료기기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연구 개발을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연구관련 자료와 정보의 교류, 연구 시험 장비와 설비의 공동 활용 등으로 첨단전자의료기기 분야에서 상호협력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료연구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소재기술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의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핵심 사업은 구조재료, 기능재료, 융합공정, 산업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 ● 목포대학교

-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신규 지원(사업기간:3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로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목포대학교는 이번 1차년도에 국비 5억원과 지방비 2억 5백만원 등 총 7억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화순군, 무안군, 전남한방산업진흥원,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등의 참여기관과 함께 '친환경 약용자원 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이번 RIS 사업선정으로 호남의 한약초 최대 생산 및 유통지로 자리잡고 있는 화순군에 친환경약용자원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주·전남·제주의 약용자원 유통의 중심지화 실현, 자생력 강화 및 약용자원의 특화를 통해 한약초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 이번 RIS사업의 총괄책임자 서재현(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화순약용자원 산업진흥을 위한 산업 및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약용자원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약용자원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화 ▲화순약초유통망 구축 및 판매처 확대 ▲우수한 약용자원 생산기반조성 및 스타기업 발굴 육성 등의 사업목표를 설정,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학학문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전북대학교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에너지절약 10% 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먼저 전북대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학생들과 함께 공감해 나가고자 학생 6명을 '에너지 지킴이'로 선정해 15일부터 다양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지킴이'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전북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철(3개월)과 겨울철(3개월) 등에 각 부서를 비롯해 연구실, 실험실 등을 순회하며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제거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에너지 절약! 내가 먼저! 나만이라도 실천합시다'를 에너지 절약 슬로건으로 내걸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무실 냉·난방 기준 온도를 1°C 강화해 냉방의 경우 기존 27°C에서 28°C로, 난방의 경우 19°C에서 18°C로 조정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학내 전체 EHP 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천장형냉난방기(EHP)의 냉난방온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빈 강의실 및 연구실에는 공실제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생활과학대에 시범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대학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대 황호진 사무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 거점국립대인 전북대가 솔선수범해야 할 문제"라며 "에너지 사용 10%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연간 3억5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문기)의 산학협력단(단장 이우영 교수)가 오는 7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2010 녹색성장분야 중소기업직 훈련컨소시엄사업 교육'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기대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5년차 수행기관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일명 'Bridge 사업' 모델을 정착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4년간 중소기업 16,418명, 대기업 7,110명 등 총 23,528명을 대상으로 전기전자분야 재직자 교육 실시)

##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총장 박철)는 17일,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 16개 참전국의 참전용사 후손들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 초청하여 학비 및 생활비 전액을 무료로 교육시키는 장학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2011학년도부터 매년 16개 참전국가에서 2명씩 총 32명을 초청할 예정으로, 사업 개시 후 4년이 경과하면 약 130여 명 규모의 학생들이 한국외대에서 수학하게 된다.

학력기준은 이전 학력 성적과 추천장 등 외국인학생 입학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하고, 학생들은 한국외대로 부터 한국어연수비 및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학부나 대학원 중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이 가능하며, 한국외대에서 학부과정 후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 2010년도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올해 6월부터 대학생, 기업, 출연연구소가 초·중등학생에게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10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사업은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과학교육을 기업, 출연연구소, 과학관, 대학생 봉사자 등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 초·중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직업적 관심으로 발전시켜 잠재성 있는 이공계 인력 육성에 기여하고,

○ 특히, 소외지역 초·중등학생에게 과학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여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한다.

□ 김영식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동 사업을 통해 초·중등학생에게 단순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 특히, 농산어촌·도서벽지 및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과학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과학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선도대학 29교, 우수대학 21교 등 총 60개 대학 선정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는 6월 18일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사업' 60개교(325억원),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7개교(15억원)로, 총 350억원(대교협 사업관리비 10억원 포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 교과부·대교협은 지난 4월 16일 사업 공고 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 현직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09년 사업 추진 실적(또는 도입 여건), '10년 사업 운영계획, 향후 3년간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mailto: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Member Universities News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